

감정을 대적하라

본문: 누가복음 4:14-37

오늘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사고를 흔들며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가스라이팅이 꼭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말하고, 설득하고, 영향을 주려 합니다.

심지어 영적인 영역에서도 우리는 혼란을 경험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영적인 감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누가 강한 말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그 말이 성경 안에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놀랐지만, 결국 자기 감정과 자기 기준을 따라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는 분노로까지 이어졌습니다.

01 영적 아비를 두라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자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그러나 곧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를 얼마나 잘 아는데, 무슨 메시아냐?"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합니다. "가버나움에서 한 일을 여기서도 해봐라. 그러면 믿겠다." 이것이 바로 '때문에' 신앙입니다. 말씀만으로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자기 감정이 납득되어야 하고, 자

기 경험에 맞아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불구하고' 신앙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을 배우기 위해 우리에게 '영적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는 '일만 스승'은 많지만 '영적 아버지'는 없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유튜브와 정보 속에서 이것저것 조금씩 배우지만, 정작 누구에게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혼자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디모데처럼, 영적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맹신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성경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이성으로 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훈련 역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으로 분별하는 것, 그리고 영적 아버지 안에서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 역시 문맥상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이야기를 통해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 나사렛 사람들의 감정을 충분히 건드릴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관계가 틀어질 것을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평판보다 영혼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메시지의 형식이 아니라 메신저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용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말하는 사람은 샅꾼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끊어질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참목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비위 맞추

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때로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말의 강함이나 분위기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인지,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02 감정을 대적하라

‘때문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감정에 끌려 살아갑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자기 감정이 상하자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갈며 스테반을 죽였습니다. 둘 다 마음이 찢렸습니다. 그러나 반응이 달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 자체가 아닙니다.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감정은 진리의 출처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은 언제나 어떤 상황과 환경에 대한 반응입니다. 따라서 감정이 진리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불구하고’ 신앙을 하는 사람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사람입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흔들리면 흔들린다고 하나님께 다 쏟아냅니다. 그러나 삶의 결정만큼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합니다.

반면 ‘때문에’ 신앙을 하는 사람은 감정을 숨기는 척하지만 결국 자기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유익과 자기 평판이 흔들리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을 숨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삶은 말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말씀만으로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 역사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가버나움 사람들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안 보여주시고, 말씀만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대적하십시오. 그러나 감정을 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하나님께 토설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결정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십시오.

‘때문에’ 신앙이 아니라 ‘불구하고’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위에 역사하십니다.

소그룹 나눔 질문

1. [영적 멘토] 내 삶에 ‘영적 아버지’ 혹은 믿음의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어떤 과정을 통해 영적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얼마나 친밀한가요? 나는 누군가의 권면을 들을 때 어떤 기준으로 분별하고 있나요?
2. [과거 패턴] 감정은 느끼지만 감정대로 결정하지 않았던 경험 혹은 반대로 감정대로 결정했다가 후회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3. [현재 상태] 최근 내 감정 때문에 흔들렸던 사건이나 관계가 있었나요? 지금 내 삶에서 가장 감정을 대적해야 하는 영역, 말씀 때문에 내려놓아야 할 감정이나 집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4. [삶에 적용] 이번 한 주 동안 ‘불구하고’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 실천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5. [기도 요청] 서로를 위해 기도해준다면 공동체에서 당신에게 어떤 기도를 해주었으면 하나요?